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국 보험유관기관, 금융안정법에 우려 표명

-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유관기관들은 최근 하원에서 채택된 금융안정법(Financial Stability Improvement Act)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하원에 발송함.
 - 지난 10월 말 미 재무부와 하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파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펀드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법안을 발표한 바 있음.
 - 이에 대해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유관기관들은 동 법안이 금융감독협의회(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)로 하여금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분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은행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감독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함.
 - 이번 서한에 공동으로 참여한 단체는 미국보험협회(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), 설계사 및 중개사 협회(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of America), 상호보험협회(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), 손해보험협회(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), 재보험협회(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) 등임.
- 보험유관기관들은 서한을 통해 이번 법안이 은행권의 파산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재무적 파산 가능성이 낮은 보험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함.
 - 이번 금융위기 동안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금융시장과 경제환경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산업특성상 레버리지 비율이 낮고, 타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/자본 비율도 낮으며 보수적 투자전략과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리스크 전염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임.
 - 또한 미국의 보험산업은 각 주단위 감독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급불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증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법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연방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적하다고 강조함.

(Insurance Journal, 11/11)